

# “돈육유통구조부문”



권 원 달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1.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은 급격하게 성장되고 있으며, 기업축산의 형태도 다른 축산부문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양돈농가수는 감소되고 있는데 호당사육규모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규모 생산이 많으며 생산단위도 유동적이며 자체 조절이 어려워 가격진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최근 양돈협회나 축협을 중심으로 자율조절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데는 많은 제한 요인이 있다.

양돈산업이 점차 기업화 됨에 따라 유통부문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88년에는 축산물 유통개선에 역점을 두어 산지유통체계를 농·축협을 중심으로 계통출하를 강화하고 지방의 육류공급을 위해 축협식육유통센터를 개설하며 축협공판장의 증설과 소와 돼지의 도체등급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유통부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의 양돈산업은 현재의 성장추세로 보면 기업양돈이 크게 증가 될 것이며 소비자 기호의 변화에 따라 돼지고기 소비도 증가 될 것이며 유통부문도 크게 개선되어 유통구조나 기능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 될 것이다.

## 2. 유통실태와 특징

- 돼지 및 돼지고기 유통구조와 기능은 소 및 쇠고기의 유통실태와 비슷하게 되어 있다.
- 축산물시장이 생축과 지육시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도축이란 과정을 거치고 있다.
- 산지가축시장은 점차 통폐합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영세한 규모로 분산되어 있다.
- 도축장도 영세하게 난립되어 있으며, 운영

## 90년대의 양돈산업 발전 방향

관리 체계도 다원화 되어있다.

● 식육도매시장은 전국에 9개소가 있으나, 지방육 반입이 허용되면서 운영실태가 부진하다.

● 식육소매시장은 더욱 영세한 형태로 전국에 17,632개소가 분산되어 있으며, 취급물량도 지극히 적어 생계유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유통경로는 소 및 쇠고기와 비슷하게 되어 있다. 농가가 출하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되어 있으며 농가가 수집상 또는 수집 반출상을 통해 특별지 도축장 또는 식육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상인경로와 축협을 통한 계통출하로 크게 대별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양돈가를 중심으로 수퍼마켓 또는 연쇄점 등 대량수요처와 산지 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지육형태로 거래하는 경로가 늘어나고 있다.

● 돼지 및 돼지고기 유통마진은 지역과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남원에서 서울에 출하되는 상인이 지육을 출하하는 경우 유통마진율은 15.6%, 상인이 지육을 출하하는 경우는 20.6%이며, 계통출하의 경우는 14.7%로 조사되고 있고 소 및 쇠고기의 유통마진율보다 상

대적으로 높다.

● 유통기능을 보면 가축시장과 식육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은 경매로 되어 있으나, 일부 가축시장을 제외하면 경매방법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 식육도매시장의 경매방법도 축협공판장은 전광판식 경매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경매시에 상장지육에 대한 지도가격제가 되지 않아서 하한가격에 대한 보장방법이 없다. 즉 경매 참여자인 중매인이 나름대로 최저가격에서 경매에 임하기 때문에 하한가격이 지나치게 내려가서 출하자가 원하는 가격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 식육소매시장 거래방법은 정육거래로 되어 있으며, 소매가격은 행정지도가격으로 묶여 있다. 소매거래방법은 주로 정육거래이고 포장육 또는 부위별판매방식이 일부점포에서만 채택되고 있다.

● 부산물판매는 축협 서울공판장을 제외하면 관행적인 거래방법으로 하도급 판매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극히 비위생적인 유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90년대의 양돈산업은  
기업양돈이 크게 증가될  
것이며, 소비자 기호의  
변화에 따라 돼지고기  
소비도 증가될 것이다.

### 3. 유통구조의 새로운 동향

’88년도 축산시책 중 유통부문은 상당한 전환점을 마련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책면에서 강조하는 부문을 보면 산지출하 조직을 강화하여 축협을 통해 계통출하비중을 늘리고, 축협의 식육유통센터를 금년에도 2개소를 늘린다. 도매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단위의 축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며, 축산물의 등급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돼지의 도체 등급제를 실시한다는 것, 식육유통을 상인 유통경로에서 생산자단체인 축협을 통해 계통출하하고, 생축, 도축, 지육, 정육의 유통과정으로 체계화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육유통은 유통구조나 기능면에서 새로운 방식이 점차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축산 외적인 여건 즉 인건비의 상승과 경영수지의 악화, 소비자 기호의 변화로 점진적이지만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1) 양돈사육의 규모확대와 집단화.

양돈산업은 사육형태가 점차 규모화되고 집단화되고 있다. 부업양돈이 수적으로는 상당하지만 사육두수나 기술수준은 여전히 영세하고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양돈가가 늘어나고 다두화 즉, 규모화됨에 따라 노동 절약적인 성력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사육 지역이 집단화되고 있는데 이는 사료공급 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각종 자재구입이 규모화에 따라 경제성이 있고 기술수준의 평준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육기술은 고도화되고 이것이 평준화 되어감에 따라 사료효율이 높고 질병 및 중체량이 거의 비슷해져서 새로운 형태의 수평적통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육형태의 변화, 즉 다두사육 경영체제는 품질, 규격이 일정한 생산체제를 확실시하고 육질의 개별차를 줄이게 되어 품질의 평준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경매거래를 더욱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생산과 유통이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 2) 유통주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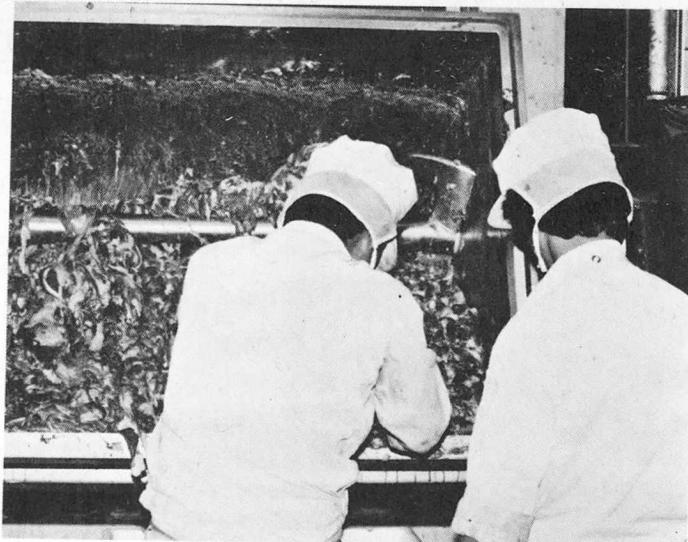
돼지 및 돼지고기의 유통주체는 대부분 상인에 의한 상인자본의 지배현상으로 특징 지워졌다. 상인은 농가가 사육한 돼지를 수집·출하·도축·지육·정육의 전과정을 유통시키는 주요기능을 수행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인자본은 상기능 이상의 댓가를 수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양돈경영이 사육규모 확대에 따라 전문화·기업화되면서 기업양돈가가 늘어났으며, 종래의 유통과정에 과감히 대응하여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아 경제적 방어를 하고 있다.

사육형태에 따라 기업양돈가는 스스로 수집·출하기능을 수행하여 상인자본에 대항하고 있으며 그외의 다수농가는 생산자 단체를 통하거나 양돈협회 등의 자생적인 단체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축협이 가축시장운영을 효율화하거나 도축장 관리 그리고 지육공판장을 개설 운영하며 소매 단계에도 직매장을 설치하여 상인자본에 대항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통주체는 상인에서 농민 또는 단체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양돈사육농가는 사육기술 뿐 아니라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종래 상인에 의한 유통과정이 폐쇄적이고



90년대의 양돈산업은  
기술 혁신과 생산비 절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  
견딜수 없을 것이다.

전근대적인 형태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법을 모색·추구하고 있다. 유통과정에 대한 지식은 크게 향상되고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와 상인조직을 비교하여 자체방어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축산물유통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 의한 유통근대화시설의 확충과 투자증대·거래방법의 개선 등 새로운 시책이 채택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통근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유통주체도 상인에서 농민 또는 농민단체로 전환되거나 전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가축시장과 도축장에 대한 축협의 관리운영과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는 유통주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3) 지육도매단계의 변화

현재의 소비지 식육도매시장은 지방육 반입의 증가와 생축 입하의 어려움 때문에 그 기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식육 도매시장과 축협 공판장은 서울을 제외하면 취급량이 감소되고 있다. 그것은 지방육의 소비지 반입이 증가되는 것도 이유 있지만 도매시장의 기능도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돈농가가 돼지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

우 반입과정이 비위생적이고 가격변동에 따라 도축시간을 맞출수 없어 차상계류까지 하기 때문에 감체량이 증가되고 부대비용이 늘어난다. 또한 도매시장에 상장 경매되는 과정도 지극히 중매인 위주로 되어있다. 즉 돼지지육상장에 대한 기준가격 즉 하한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하한가격 즉 최하한 가격부터 경매를 성립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축협이 식육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지에 반입될 지육생산과 소매 과정에 판매 될 포장육 부분육을 생산하여 근본적으로 지육 또는 정육형태로 소비지에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육도매시장 기능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 4) 소매단계의 변화

소매단계의 정육점 중심의 유통기관이 수퍼마켓과 같은 대량소매기관이 진출로 다원화 되어가고 있다. 식육점은 수퍼마켓의 전략상품으로 취급됨에 따라 점포 입지와 유통기능이 다양해지고 있다. 수퍼의 식육점은 대형화 될 뿐만 아니라 부분육 형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형화됨에 따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인건비의 상승과 정육기술자를 확보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육 또는 포장육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는 박피한 다음 부분육으로 부위별로 판매되기 때문에 소매기관은 물론 소비자가 기호에 맞는 돈육을 구입할 수 있어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정육점의 입장에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필요한 양 만큼 고기를 구입하여 판매장 면적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소매점의 대형화와 부분육·포장육의 판매는 식육도매센타와 같은 지육시장의 변화와 병행하여 발전 될 것이다.

### 4. 90년대의 발전방향

앞으로 양돈산업이 변화됨에 따라 유통부문은 더욱 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지적한 유통부문의 새로운 동향은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 될 것이며 90년대는 보다 위생적이며 성력화하면서 유통능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돈산업이 규모화되어 생산체계가 표준화나 규격화되면서 식육가공자본이 점차 사육·가공·유통부문을 통합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며 대형생산유통의 광역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유통주체면에선 생산자 또는 농민조직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이며 각종 형태의 시장조사·생산계획·사료공급·규격화·표준화·수집·처리·수송·저장·보관·판매의 일관된 과정을 폭넓게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축협이 식육센타와 식육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상인기능은 상당하게 견제될 것이며 도매시장이 명실상부한 공영시장 기능을 맡게 될 것이다.

가축시장과 도축장도 점차 통폐합되어 경제권 중심으로 발전될 것이며 생산자에 의해 운

영관리 될 것이다.

식육소매과정은 수퍼마켓, 중심으로 대형화되면서 기존의 정육점은 종합식료품점의 형태로 발전 될 것이므로 부분육과 포장육 유통이 늘어날 것이며 관행거래방법은 중소도시 또는 군부에서만 잔존하게 될 것이다.

정육이 일반상품과 같이 소매되면서 식육점은 소비자에게 조리·상담 등 각종 서비스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 5. 맺는말

돼지 및 돼지고기의 유통의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유통구조와 기능이 점차 정착 되어가고 있다. 사육방법이 규모화, 기업화되면서 유통주체도 생산자단체도 주도될 것이며 식육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발전할 것이다. 즉 식육센터가 정육소매기능과 연계되어 식육 도매시장 기능을 사양화하면서 소매시장을 대형화하고 내용상으로 부분육과 포장육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는 축산외적인 여건 즉 인건비의 상승과 기술자 확보의 어려움, 소비자 기호의 변화로 더욱 촉진될 것이며, 보다 능율적이고 근대화 되면서 위생적인 유통구조로 정착될 것이다.

그러나 90년대의 양돈산업은 기술혁신과 생산비 절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 견딜 수 없을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지역간 농가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적자생존의 냉혹한 원리에 따라 성장 발전 될 것이다.

돼지 및 돼지고기 유통이 철저하게 소비자 지향적인 유통기능으로 정착되어야만 90년대의 양돈산업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